고용노동부	보 도 자 료	휴먼뉴딜 한국판뉴딜

보도일시	2021. 12. 29.(수) 조간 *인터넷 2021. 12. 28.(화) 12:00 이후 / 총 5쪽		
담당부서	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	과 장 장현석 사무관 박형서	044-202-7994 044-202-7530

< 본 자료는 http://www.moel.go.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. >

우리나라 근로자들의 77.8%는 주 최대 52시간제 시행을 "잘한 일"로 평가

◈ 안경덕 장관, "주52시간제 점차 안착" 평가, "일부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는 컨설팅 등 행재정적 지원 지속" 의지 밝혀

1. 총괄

□ 우리 **국민의 절반 이상(55.8%)**은 "**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일을 많이 하는 편**"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(적게 하는 편 6.6%),

○ "초과근무해서 임금을 더 받기"(23.5%)보다는 "**정시퇴근해서 여가를 즐기겠다"(76.1%)**는 근로자가 3배 이상 많았고,

○ **근로자의 4분의 3 이상(77.8%)이 주52시간제 시행을 "잘한 일"**이라고 평가했다(잘못한 일 15.7%).

○ 고용노동부는 외부 전문 기관에 위탁·조사한 「**주 최대 52시간제 대국민 인식조사**」 결과를 28일 발표했다.

□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"이번 조사 결과는 국민들께서 **주52시간제에 대해 긍정적 인식**을 갖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."라고 강조하며,

○ "그동안 **국회에서 보완제도가 마련**되고, **정부의 행·재정적 지원과 현장 노사의 협력** 등으로 **주52시간제가 점차 안착**되고 있다."라고 평가하면서,

○ "다만, 아직도 일부 어려움을 겪는 **기업이 있을 수 있으므로 앞으로도 컨설팅 지원 등 행·재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.**"라고 밝혔다.

□ 주52시간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의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여 국민의 "**건강권을 회복**"하고, "**일과 삶의 균형**"을 이루기 위해, 오랜 기간 사회적 논의를 거쳐 **국회에서 여·야 합의로** 도입되었다('18.2월).

○ 이후 '18.7월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되어 **지난 7월부터 5인 이상의 사업장까지 확대**되었다.

□ 고용노동부는 주52시간제 전면 시행 5개월이 지나는 시점에서 **전반적인 국민들의 인식을 살펴보고** 앞으로 정책에 참고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.

국민 인식조사 개요

◆ 조사 대상: 전국 만 19세 이상 80세 미만 일반 국민 1,300명
◆ 조사 기간: 2021.11.26.~2021.11.30.
◆ 조사 방법: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조사(CATI) (무선 70%, 유선 30%)
◆ 표본 오차: ±2.72%p. (95% 신뢰수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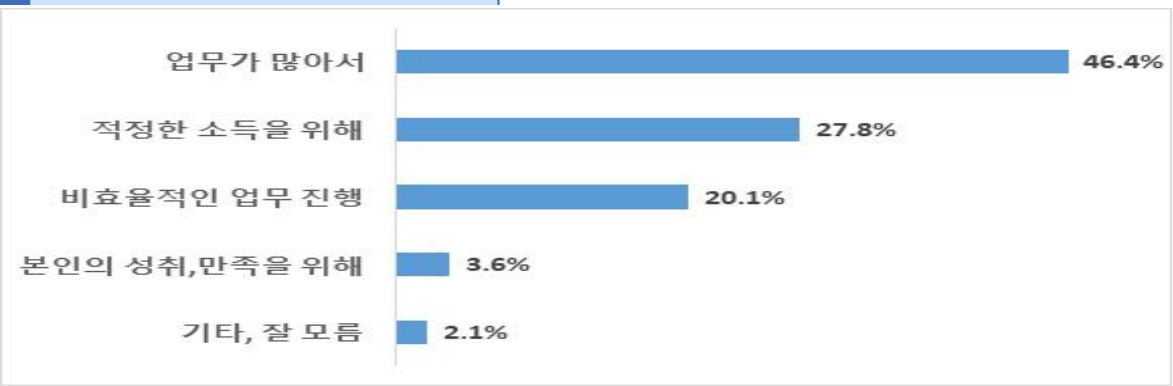
2.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인식

□ 먼저 **우리 국민의 55.8%**는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**"일을 많이 하는 편"**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데,

○ 이러한 인식은 남성(52.7%)보다 여성(58.8%)이, 고령층보다 **젊은층에서 더 많은 것**으로 나타났다(19~29세 71.2%, 30대 71.4%, 40대 64.3%, 50대 50.6%, 60세 이상 34.0%).

○ 일을 많이 하는 이유로는 **"업무가 많아서"(46.4%)**, "적정한 소득을 위해"(27.8%), "비효율적인 업무 진행"(20.1%) 때문이라고 답했고, **"본인의 성취·만족을 위해서"는 3.6%**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.

일을 많이 하는 이유



□ "**일**"과 "**개인·가정생활**"에 대해서는 65.6%가 "둘 다 중요"하다고 답했으나, **"일"(4.7%)보다는 "개인·가정생활"(29.4%)이 중요**하다는 의견이 많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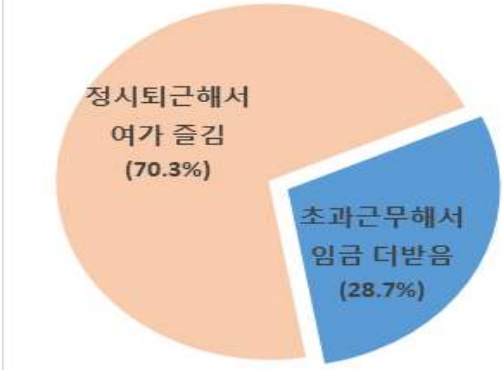
○ 또한 **"초과근무해서 임금을 더 받기"(28.7%)**보다는 **"정시퇴근해서 여가를 즐기겠다"(70.3%)**는 선택이 많았다.

- "정시퇴근해서 여가를 즐기겠다"는 응답은 남성(61.6%)보다는 여성(79.0%)이, 고령층보다는 젊은층에서 두드러졌지만(19~29세 71.1%, 30대 80.6%, 40대 69.7%, 50대 73.6%, 60세 이상 61.1%), **전 연령층에서 모두 높게**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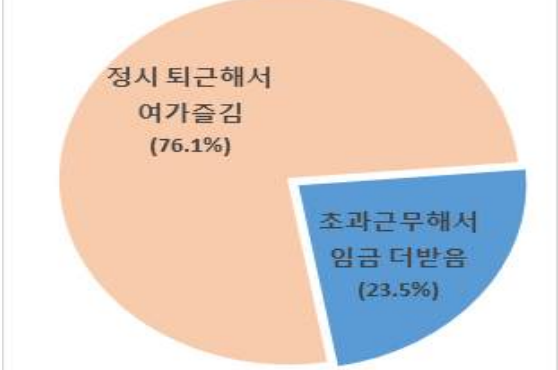
○ 특히, **임금근로자의 경우에는 76.1%가 "정시퇴근해서 여가를 즐기겠다"는 응답**을 선택했다("초과근무해서 임금을 더 받기" 23.5%).

"정시 퇴근 후 여가" VS "초과근무로 임금 더 받기"

<국민>



<임금 근로자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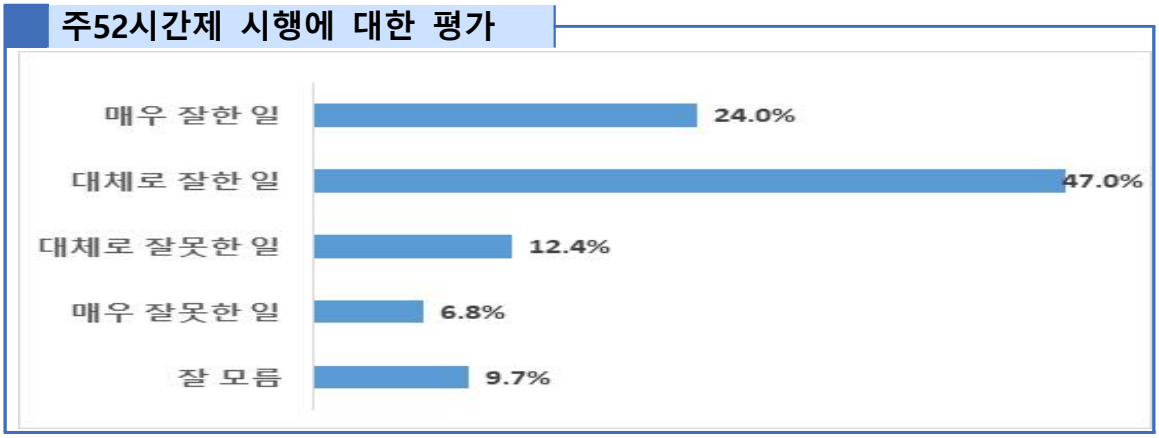


3.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인식

□ 우리 사회의 장시간 근로 개선을 위해 도입한 주52시간제에 대해 **국민의 90% 이상이 인지**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(90.8%),

○ **주52시간제 시행**에 대해서는 **"잘한 일"이라는 응답이 71.0%**로, "잘못한 일"(19.3%)보다 많았고, **특히 임금근로자는 77.8%가 "잘한 일"이라고 응답**하여 "잘못한 일"(15.7%)보다 월등히 많게 나타났다.

주52시간제 시행에 대한 평가



□ 현재 직장에서 주52시간제를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 임금근로자의 88.0%가 **"철저하게 준수" 또는 "어느 정도 준수"**한다고 답했고, 10.8%는 "준수하지 않고 있다"고 답하여,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주52시간제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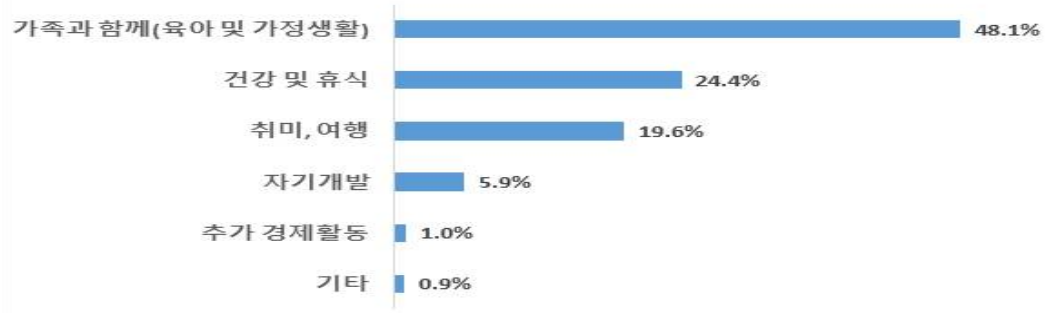
4. 노동시간 단축의 효과 및 기대

□ 주52시간제로 인한 삶의 질은 "이전과 별 차이가 없다"는 의견이 많았으나(55.9%), "나빠졌다"(8.3%)보다는 "좋아졌다"(33.2%)는 의견이 많았고,

○ 여가시간에서도 "변화가 거의 없다"(64.4%)는 의견이 많았으나, "감소했다"(3.6%)보다는 "늘어났다"(31.2%)는 의견이 많았다.

○ 여가시간이 늘어났다고 답한 경우에는 **늘어난 여가시간을 주로 "가족과 함께"(48.1%)** 보내거나 "건강/휴식"(24.4%)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늘어난 여가시간 활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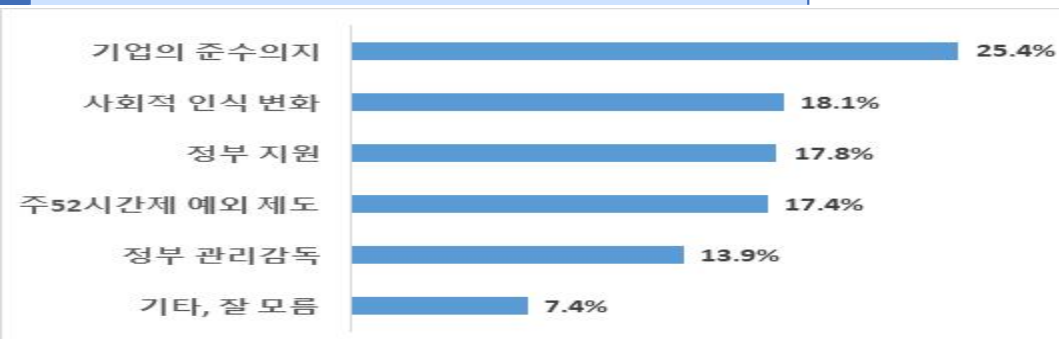


○ 임금에서는 “변화가 거의 없다”(74.1%)가 대부분이었고, “증가”(5.1%)보다는 “감소”(20.4%)가 많았으나, 감소했다고 답한 경우에도 “초과근무해서 임금을 더 받겠다”(37.0%)는 의견보다는 “정시퇴근해서 여가를 즐기겠다”(61.7%)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.

□ 주52시간제를 꾸준히 정착시켜 간다면 삶의 질은 “나빠질 것”(7.4%)보다는 “좋아질 것”(41.8%)이라는 응답이 많았다(별 차이 없을 것 48.8%).

□ **주52시간제의 안정적인 정착**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**“기업의 준수 의지”(25.4%)**를 가장 많이 꼽았고, 다음으로 “사회적 인식의 변화”(18.1%), “정부의 지원 정책”(17.8%), “주52시간 예외 제도 확대”(17.4%) 그리고 “정부의 관리감독 강화”(13.9%) 순으로 나타났다.

주52시간제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



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박형서 사무관(☎044-202-7530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